

계명문화대, 2022학년도 학과 개편

등록 2021-05-26 11:20:07



계명문화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계명문화대학교는 2022학년도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을 통해 입학정원 2031명(지난해 2046명보다 15명 감소)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계명문화대는 오는 9월 수시1차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계명문화대는 의료재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재활과(입학정원 30명)를 신설했다.

의료재활과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 심리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신체 및 기능적 재활을 위한 의족, 의수, 척추보조기, 무릎보조기 등 맞춤형 의지·보조기 전문인력 양성, 보조공학기기 개발, 유지, 보수 및 보조기기 상담·교육·정보제공을 통한 개인에게 맞춤 제작하는 보조공학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라클스쿨을 개설하고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금융부동산과(25명), 웰빙푸드조리과(25명), 커피문화산업과(25명), 패션쇼핑몰창업과(20명), 골프·피트니스과(20명)를 신설했다.

미라클스쿨은 만 25세 이상의 평생학습자들이 모집대상으로 수업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운영된다.

입학 시 전원 수업료 50% 감면 혜택과 학업디딤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며 학기 중 성적 3.0이상을 유지 시 수업료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수업 편의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체 전문가들 위주의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